



광주 김치문화축제 내일 개막

문화 곁들인 김치, 세계인 사로잡는다

제16회 광주김치문화축제가 오는 23일 개막식을 갖고 11월1일까지 염주종합체육관과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등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김치축제에는 외국인들을 겨냥한 '국제 김치학술포럼'을 비롯해 '세계 웰빙 발효식품관', '세계음식문화관', '다문화 음식거리'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김치 세계화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김치문화마당 ▲김치콘서트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김치사랑 나눔 메세나 ▲김치마켓 ▲식객거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김치, 천년의 맛!'을 주제로, '김치는 문화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축제는 외국인관광객들과 광주시민 등 100만 명의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전시, 축제, 마케팅, 홍보, 국제 심포지엄 등 5개 부문 39개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광주김치문화축제는 그동안 광주시의 지역규모 축제인 '광주김치축제'로 진행해오다, 올해 김치 식(食)문화를 선도하는 축제로 전국적인 행사로 도약하기 위해 '광주김치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김치세계화의 원인을 선인한 이번 김치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국제김치학술포럼'이다. 이 행사는 김치의 세계화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사다.

23일 개막식에 이어 진행되는 국제김치학술포럼



2009 광주김치문화 축제가 외국인들을 겨냥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김치의 세계화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김치축제 '사랑나눔 김치담그기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김치문화축제 주요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일정	장소
김치주제관	세계김치연구소 홍보관	상설	염주체육관
	세계 웰빙 발효식품관	" "	" "
	양념·향신료의 비밀관	" "	" "
	세계음식문화관	" "	" "
국제컨퍼런스	국제김치학술포럼	10. 23(금)	김대중컨벤션센터
	개막행사 '김치, 천년의 맛'	10. 23(금)	염주체육관
공식행사	폐막행사 '김치는 광주다'	11. 1(일)	" "
	김치마켓	10. 25~10. 30	" "
김치문화마당	친환경 김치 텃밭	" "	" "
	김치일라스트전	" "	" "
김치콘서트	김치 생대 디오라마	" "	" "
	김치명인 콘서트	10. 31(토)	" "
	김치퓨전요리 콘서트	10. 24(토)	" "
	한국미식회의 함께하는 김치사랑 나눔 메세나	11. 11(예정)	국립중앙박물관
김치메세나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김치사랑 나눔 메세나	10. 23(금)	염주체육관
	지치구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김치사랑 나눔 메세나	11. 1(일)	" "
김치마니아	김치담그기 체험관	상설	" "
	김치예술무대	" "	" "
	지치구 전통시장 김치바자회	" "	" "
	김치직거래장터	상설	염주체육관
김치마켓	유기농 김치재료장터	" "	" "
	김치풀라스거리	" "	" "
	김치부페 레스토랑	" "	" "
	남도음식거리	" "	" "
식객거리	다문화음식거리	" "	" "
	남도특산물거리	" "	" "
	광주5미 식객투어	" "	" "
	우리밀 비게트	" "	" "
	떡과 김치의 조화-예담은 홍보관	" "	" "

국제심포지엄·세계 발효식품관 등 외국인 행사 풍성 방문객 100만명 목표...내달 1일까지 39개 프로그램

지업에는 미국 농업연구청의 프레드 브래디 박사, 호주 바이오 인더스트리 파트너스 디렉터인 마가렛 브리츠 박사, 스페인 발효연구소의 헤더 로드리게즈 박사 등 국제적인 석학들이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세계 웰빙식품발효관은 김치, 치즈, 낫토, 요구르트 등 세계 4대 발효식품의 탄생과정과 효능을 집중 조명하는 행사다.

세계 웰빙식품 발효관은 ▲명사들의 말을 통해 보는 발효의 의미 ▲발효를 소개합니다 ▲세계 4대 발효식품 ▲헬스시 선정 5대 건강식품 ▲발효영상관 ▲CODEX, 김치 국제식품규격 등록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해의 9개 도시로 구성된 세계 음식문화관은 광주시의 자매·협력력을 맺은 9개 도시들이 참가해 다양한 식(食)문화를 선보이는 한편, 김치 세계화의 가능성을 가능케하는 공간이다. 일본 센다이시(일본), 인도네시아 메탄시, 이탈리아 토리노시 등이 참여한다. 일본 센다이시 명성 고교 학생들이 참가해 센다이시의 전통음식도 소개한다.

또 행사 참가 9개 도시들이 출품한 세계김치퓨전

요리 6종을 행사참가자들이 맛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된다.

김치담그기 체험관에는 외국인 행사 참가자들을 위한 외국인 체험관이 별도로 개설되며, 외국인들은 이 공간에서 목은지 김치전, 배추김치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어른, 어린이들이 별도 공간에서 김치를 담그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꾸며진다.

행사장인 염주체육관 광장에 마련된 '다문화 음식거리'는 세계 8개국 대표 요리를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필리핀의 음식인 톨피아 샹하이를 비롯해 베트남의 고이꾸은, 인도의 예그를, 우즈베키스탄의 뽕뽕 등이 선보인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국내외적 홍보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한식의 산업화, 세계화 9대 중점 전략' 발표에 따라 한식 세계화를 선도하는 국제적 규모의 김치 전시 및 축제가 요구되고 있다"며 "광주김치문화축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김치 세계화의 기반 조성 및 김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전국 첫 '광주 인권조례' 뭉 담았나

시장·시민 등 책무 규정 정책 추진 인권영향 평가

전국 최초의 인권 조례인 '광주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가 21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인권 증진과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총 3장 24조로 구성돼 있다.

먼저 조례안은 광주시장과 시교육감, 시민 등 주체별 책무를 규정했다.

광주시장은 인권 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관련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광주시교육감은 청소년들의 인권교육을 함양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광주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각급 학교·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시민들은 인권 존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했다.

특히 광주시장은 인권 증진과 관련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 세계화 전략, 학습체계 구축, 자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시민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위원회에는 광주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광주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 이를 5년마다 정비하도록 했다.

또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인권 현황과 인권 증진 시책 추진 상황 등을 알리는 '인권백서'를 작성, 공표토록 했다.

이 같은 시책을 펼 수 있도록 광주시는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하도록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도록 했다.

'광주 인권·평화센터' 조성과 인권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 상징적 공간을 만들어 도시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인권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국제화 추진 기구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의회 이명자 의원(민주·비례대표)은 "5·18민중항쟁 등 광주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 인권을 위해 앞장서왔다"며 "세계적 민주·인권·평화도시", "품격 높은 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쌀 조기 관세화 논의 백지화해야"

김우남 의원 국감서 주장

정부와 농민단체들이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를 논의 중인 가운데 도 하계발어젠다(DDA)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기 관세화 논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물부 국정감사에서 "쌀 조기 관세화는 DDA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쌀의 '조기 관세화'와 '2015년 자동 관세화'가 논란이 되는 것은 국내 농업에 끼칠 피해 규모와 DDA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에 대한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관변학자는 2015년 자동 관세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쌀의 조기 관세화를 통해 의무수입량 증량에 따른 피해를 축소시키는 주장이며 개도국 지위 유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농민단체와 시민·교수사회에선 2015년 자동 관세화는 협상 및 법 개정의 사안이며 쌀을 조기 관세화하면 향후 개도국 지위 유지가 어렵고 개별 국가와 맺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국내 농업 보호장치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조이 여행사

234-3222

카멜리아로 떠나는 큐슈 온천여행

299,000₩

하우스템보스즐기기

399,000₩

대아고속철도로 떠나는 대마도여행

349,000₩

아시아로 떠나는 북경 만리장성

1,990,000₩

아시아로 떠나는 북경 만리장성

389,000₩